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식품 교역 시 공정한 무역행위를 확립하고자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관련 법령 제정을 목적으로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한 정부간 기구로 현재 183개국과 유럽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주요 CODEX 회의 결과로는,

-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CODEX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를 금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하여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위해분석 지침’을 협의하여 내년 총회에서 규격안으로 확정하고, 2011년에 최종 규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 동 지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식품 중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미생물이 인체에 미칠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국가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용됨.

- 또한, 2006년 “제29차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회의”에서 영양표시를 위한 ‘영양소 기준치 설정’ 주도로 결정된 이후 초안 채택, 대면회의(Physical Working Group) 의장국 역할, 규격안 확정 등 영양 기준 국제화에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최종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하기 위해 2010년도에도 국내·외 협력국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와 활발한 논의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제기준 설립 국가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임.

- 식약청은 세계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내 식품안전기준 등을 국제 규격과 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선진화 및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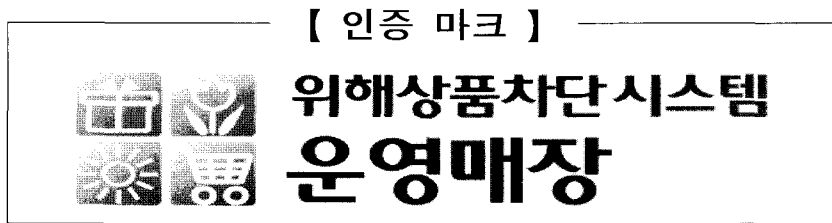
### 전국 8,700여개 유통매장에서 위해상품 완전히 걸러낸다

멜라민 과자, 중금속 함유 장난감과 같은 위해상품을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걸러내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전국 8,771개 매장에 구축됨에 따라, 매일

5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위해상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2월 10일 롯데호텔에서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인증마크를 수여하였습니다.



※ 유통업체는 인증마크를 받음과 동시에 전국 각 매장에 이를 부착할 수 있어 소비자는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시범사업 협약식(2009.4.7) 당시에는 롯데마트만이 참여하였으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동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한 다른 유통업체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5개 유통업체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인증마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됩니다.

○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는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하여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완전 차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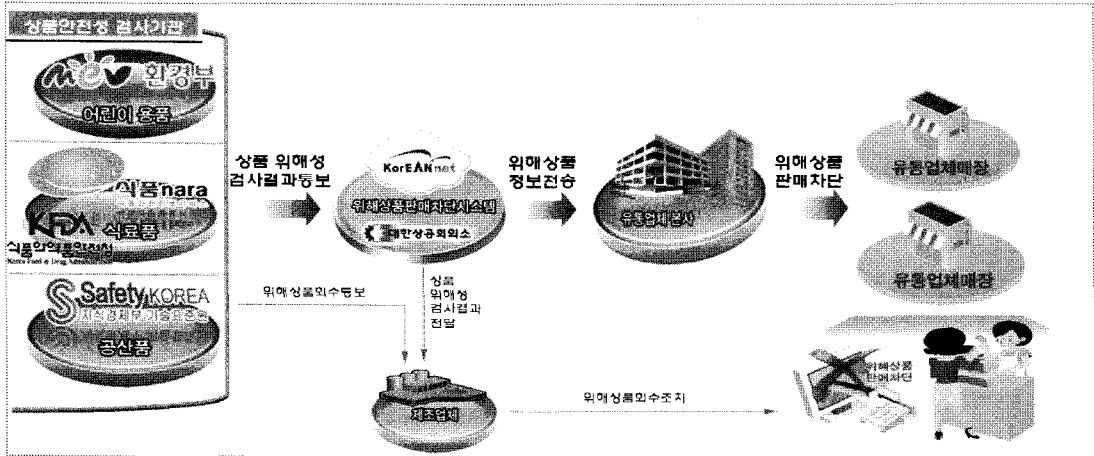
□ 금번에 구축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 한편 정부는 유통업체의 판매중지, 회수완료 등의 조치 결과를 시스템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정부의 상품안전성 관리체계가 진일보하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즉시 유통업체 본사에 전송되고, 전국 모든

□ 금년 3월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5개 유통업체가 「위해상품 판매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념도 >



\* 코리안넷(KorEANnet) : 국내외 1.5만여 수입-제조업체의 110만개 상품에 대한 정보(바코드번호, 업체명, 상품이미지 등)를 저장, 유통업체에 실시간 제공 중(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2001년부터 제조유통업체에 동 서비스 무료 제공)

차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전국 8,771개매장에서 매일 5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위해상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금번 행사에서는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협약도 이루어졌는데
- 소상공인진흥원은 금년말까지 200개, 내년말까지 1,000개의 중소형 슈퍼마켓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사업 추진기관(지경부, 식약청, 환경부, 기표원, 대한상의)과 체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중소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점차 많은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을 이용함에 따라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축사를 통해
-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쇼핑환경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유통업체를 격려하고

- 소비자의 최접점에 위치한 유통업체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더불어 정부도 소비자 안전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조, 유통 등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식경제부는 금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마트, 편의점 뿐 아니라

중소형 슈퍼마켓에까지 판매차단 시스템을 지속 확산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물 에까지 확산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경로를 안전하게 하고 국내 어디서든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위해상품 발견 즉시 유통업체 담당자에게 SMS(문자메시지) 전송 및 CBS(재난문자전송서비스)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여 위해상품의 판매차단 및 회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